

복막 투석 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나타난 결핵성 식도 궤양 출혈 및 광범위 폐외 결핵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오병선 · 김병수 · 장시진 · 임민경 · 허민 · 김연성 · 이승현 · 장윤식 · 방병기

서론 : 결핵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의 경우 인구의 약 1/3 이상이 결핵에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 중 하나이다. 이 중 만성 신부전에서의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 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투석 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나타나는 결핵은 폐에서 폐외에 걸쳐 매우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저자들은 1년 전 결핵성 흉수로 진단 받은 뒤 불규칙적으로 항결핵제를 투약받은 후 출혈을 동반한 결핵성 식도 궤양 및 광범위하게 퍼진 폐외결핵 (임파선염, 흉막염, 피부 결핵) 소견을 보인 1례를 경험하였다.

증례 : 61세 여자로 만성 신부전 외 다른 과거력 없이 복막투석 시행하던 중 내원 1년 전 결핵성 흉수로 진단받고 불규칙적으로 항결핵제 복용 중 1주일 전부터 지속되는 어지러움 및 속쓰림 증세 있다가 약 200 cc 가량 토혈하여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흑색변 보였으며 우측 경부에 임파선 종창과 좌측 쇄골 상부 임파선 종창 및 흉골 부위에서 4×5 cm 크기의 부드러운 덩어리가 촉진되었다. 응급으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상 문치에서 25 cm 떨어진 하부 식도에 돌출성 혈관을 동반한 0.6×0.4 cm 크기의 궤양이 발견되었으며 혈관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궤양 부위 조직 검사상 항산균 도말 검사에 양성 소견 관찰되었다.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상 흉막염을 시사하는 소견 및 앞가슴 부위, 양측 경부, 우측 액와부, 쇄골상부, 식도주위, 기관분기하, 종격동, 우측 심횡격막각 부위에 테두리 조영 소견을 보이는 다양한 종괴 소견 보이고 있었으며 흉골 부위 종괴에서 시행한 조직 검사상 거대 세포를 동반한 육아종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현재 항결핵제 투여 중이며 외래에서 추적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 결핵성 식도 궤양과 광범위 폐외결핵을 동시에 보인 투석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